



정진 또 정진하여 몽환의 껍질을 벗어나세요!



삼보에 귀의하옵고,
 제방에서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각고(刻苦) 정진하시는 스님들과
 고단한 생활의 현장에서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여러분께
 무자년 새해는 무량대복이 깃들어 나날이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며
 삼가 '법공양' 을 올립니다.
 소납(小納)은 무자년 새해를 맞으며 제방 불제자들과 함께
 국운의 융창과 만민(萬民)의 평화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연꽃을 들어 보시고
 일생을 길과 숲에 머물며 광대무변의 진리를 설하신 것은
 중생이 저마다 불성의 당체(當體)이고
 우주만물이 스스로 영험하여 어느 것 하나 불법(佛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중생이라는 생각에 경도되어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 중생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중생의 미혹함이 본래 극락정토인 이 땅을 예토(穢土)로 만들었고
 중생의 삼독심(三毒心)이 본래의 불성에 암운을 드리웠으니
 이 세상은 하루도 전쟁과 범죄와 부도덕과 환경파괴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바세계의 검은 구름을 헤치고
 청정명명한 자성불의 하늘을 드러낼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부덕한 소납이
 지난 30여 년 간 불조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일념으로
 정진해 온 방편이 있으니, 이를 통해 만중생의 복전에
 원통묘음(圓通妙音)이 울려 퍼지길 발원합니다.
 소납은 출가 직후부터 은사 현종(玄宗) 대화상의 권유에 힘입어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경' 주력에 힘써 왔습니다.
 한 곳에서 곡기와 식수를 최대한 절제하며 30만 독(讀)을 하면서
 이 주력의 무한한 힘을 체험하기도 했던 바,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묘용(妙用)이 열려 움을 실감했습니다.
 기도 정진의 성취는 방편에 있지 않고 스스로 일심매진하여
 우주와 자신을 둘이 아니게 합일하는 경지에 있는 것이지만
 소납은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경' 주력의 공덕이
 개인의 갈등과 고통을 풀고 사바의 암운을 걷어내는 수승한 길임을 믿고
 여러 불자님들께 이 주력으로 수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갈등과 탐욕과 싸움으로 얼룩진 것은
 바로 일심으로 매진하는 기도의 공력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바세계가 관음의 원음으로 장엄되고
 천수와 천안의 원력으로 장엄되려면 일체중생이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대원력을 품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일심매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수행하는 불자가 됩시다. 자신의 수행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타인이 먹은 밥에 나의 배가 부를 수 없듯이
 나의 복전은 내가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검은 기름때가 뒤덮었던 태안반도가 온 국민의
 자발적인 봉사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듯
 우리의 속세업장과 현세 무명번뇌도 스스로 닦고 또 닦아 녹이고
 몽환(夢幻)의 껍질을 깨어 온 법계의 원혼이 천도되고
 사람과 집단과 나라의 갈등이 치유되며
 산 자와 죽은 자가 둘이 아니게 함께 복락을 누리는
 청정불국토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2008년 새해를 시작하며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원장 달제 지운 합장

달제 지운 스님은

본래 비었으니 젖을 것 없으라

오도송

광풍우래신의착(狂風雨來身衣泥) 미친 비바람 불어와 몸과 옷 적셔도
 심시불본공작무(心是佛本空泥無) 마음과 부처 본래 비었으니 젖을 것 없으라.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원장 달제 지운 스님은 출가 후 오직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경' 주력 기도를 하고 있다. 명산과 수승한 기도처를 찾아다니며 한 시도 주력을 놓지 않는 정진으로 기도의 힘이 대지를 덮고 하늘에 이르는 것을 깨달았다. 참회와 주력을 통해 속세의 업정을 녹이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생활임을 강조한다. 종단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조동종의 근간을 깊이 연구하여 중지를 세우고 수행자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 부처님 이래 한국불교에 면면히 흐르는 법맥을 정리해 출판물 준비하고 있다. 1960년 출가한 스님은 제방을 다니며 정진하다가 1994년 양평 금강사를 중창했다. 지금은 토굴에서 주력과 '거울을 닦아 본래를 보는' 정진을 겸하고 있다.

